



[보도자료]

GE, LED 신기술 개발, Display 최상의 색감 연출 가능

- GE, 혁신적인 붉은색 형광체 개발,
- 더 선명하고 정확한 색상 구현하는 LED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

2015년 5월 21일 East Cleveland - GE가 LE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적용해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플루오르규산칼륨(potassium fluorosilicate, 이하 PFS) 형광체 기술인 트라이게인™(TriGain™)을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트라이게인™은 기존 LED 시스템에 첨부되어 기존보다 세밀하고 뚜렷한 붉은색을 구현해 내며, 이를 통해 LED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색 재현율을 향상시킨다.

기존 LED 디스플레이는 고휘도와 화면의 질감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빨간색을 완벽히 구현해 낼 수 없었다. 하지만 GE가 트라이게인™을 개발함에 따라 붉은색의 휘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른 색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마트폰, 테블릿 PC, TV 등의 디스플레이 상 이미지를 보다 뚜렷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됐다. GE는 LED 제품에 적용되는 PFS 발광체 특허를 보유한 유일한 기업으로서, 수요 증가에 맞춰 트라이게인™을 제조 및 공급할 방침이다.

GE 라이팅의 제리 더피(Jerry Duffy) 글로벌 제품 사업 총괄은 “이 같은 기술 혁신은 GE가 가진 LED 분야의 우수한 기술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또한 GE는 입자의 크기를 줄이고 양자 효율을 향상시키며 기존 PFS 보다 수명을 증가시키는 등 형광체 합성 기술 진보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재 많은 LED 화면이 빨간색을 주황색에 가까운 색으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GE의 신기술인 트라이게인™ 개발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생생한 색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라이게인 형광체는 GE의 재료 과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미국 클리브랜드에 소재한 GE라이팅 시설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

GE 라이팅 소개

GE 라이팅(GE Lighting)은 설립자인 토마스 에디슨의 정신을 계승하여 상업용, 산업용, 도시용, 주거용 등 모든 환경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고, 빛을 통한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효율적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다. GE 라이팅은 세계 100여개국에서 13,000명

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용 브랜드(Reveal, Energy Smart 등)와 상업용 브랜드(Evolve, GTx, Immersion, Infusion, Lumination, Tetra 등)를 판매한다. 제너럴 일렉트릭 (GE)은 더 효율적인 세상을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을 성취하고자 노력한다. GE 라이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www.gelight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GE 소개

“GE는 GE만이 가진 역량과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고 만들어 갑니다. GE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합니다. GE는 연구소, 공장, 고객이 있는 현장에서 차세대 산업을 선도하고 투자하며, 세계를 짓고 건설하고, 세상에 동력을 제공하며, 세계를 이동시키고 치료합니다.” (참조: www.ge.com)

문의

담당자: Bill Cohen

이메일 주소: bill.cohen@ge.com

TEL: 001-216-266-4416

국내 문의 : GE Lighting Korea 커뮤니케이션 팀 권재은차장

이메일주소: Jeaeun.kwon@ge.com

TEL: 02-6201-4377